

연재

+
성기 발달한 동물들



최종욱

광주시청 광주우치동물원
야생동물 진료수의사
lovnat@hanmail.net

성기 발달한 동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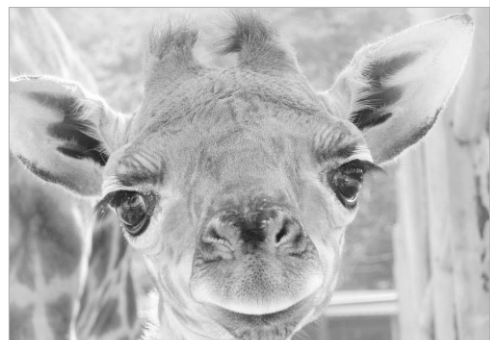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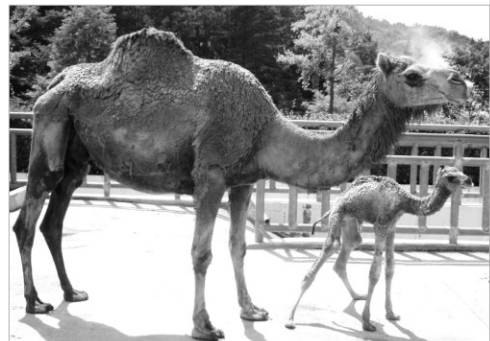
이 주제는 예전부터 다루고 싶었으나 또한 외설스럽다는 편견을 들을까봐 피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동물원에 있으면 너무 관심 있어 하는 이들이 많아 한번 과감히 접근해 보기로 했다. “야! 너, 세상에서 가장 큰 물건을 가진 게 무엇인지 알아?” “그거 혹시 말 거시기 아니야?” “그래? 우와! 저 말 것 좀 봐봐! 와! 정말 끝내주게 크네. 언제 갑자기 저렇게 튀어나왔지? 어 또 금방 쑥 들어가 버리네? 혹시 조루 아냐?” 가끔 관람객들 뒤를 그림자처럼 지나다보면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우리 동물원에 재작년 코끼리가 들어 온 이후로 감탄사가 다시 바뀌었다.



“야! 저거 혹시 코끼리 그것 아냐?” “아니야. 뭐가 잘못 나왔을 거야. 세상에 저렇게 큰 게 어디 있데?” “근데 아무래도 그것이 맞나봐. 봐! 오줌도 거기로 나오잖아!” “그런데 뭘 물건이 저렇게나 크나냐?. 내 팔뚝보다도 더 크겠는 걸. 말 것은 열개라도 모자랄 거야!” 그렇다. 실제로 코끼리 거시기는 모든 육. 초식동물들(해양 동물 건 잘 모르겠다.)을 합하여 가장 큰 대물이다. 심지어 코끼리 거시기를 코끼리의 제5지라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다. 크게 부풀러 오르면 거의 코끼리 다리 사이즈 하고도 맞먹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물건은 오줌 쌀 때 잠깐 비추고 더울 때 잠시 늘어졌다가 또 일순간 사라져 평소에는 암컷의 그것과 별로 차이가 없이 안으로 꼭 감추어져 있다.

코끼리는 고환도 외부로 나와 있지 않고 배 밑 부분도 육안으로 보기 힘들어 상아만 없다면 암수구별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것에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작동하나 보다. 코끼리와 말은 다른 초식동물에 비해 사람처럼 피부 표피까지 함께 부풀러 오르는 동물이다. 대부분의 육. 초식동물들은 성나면 칼집 같이 쑥 나와 있는 피부 안에서 뽕죽하고 미끄럽고, 다소 징그러운 분홍색 살덩어리만 총알처럼 쑥 나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금방 사라진다. 그렇게 살이 나오는 동물들은 대개가 배 가운데 두드러지고 구멍을 보호하기 위해 끝에 털이 달린 독특한 칼집이 붙어 있다. 그러나 피부까지 함께 부풀러 오르는 동물들은 총구대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피부가 여러 겹으로 주름져 겹쳐 있다.

코끼리의 거시기는 크기도 크기려니와 또한 신기하게도 우리의 손처럼 자기조절 능력이 있어 중간이 90°로 꺾여지기도 한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에겐 거의 없는 능력이다. 큰 만큼 이런 자기 조절 능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제대로 과녁을 맞추기가 당연히 힘들 것이다. ‘4톤이 넘는 수컷 코끼리의 그 큰 몸무게가 올라타서 누르



연재

+
성기 발달한 동물들



면 암컷은 어떻게 되지?’ 하고 걱정 하는 분들도 꼭 계신다. 하지만 코끼리의 암컷 거시기 구멍 역시 배 뒤쪽에 있다. 그래서 코끼리는 심하게 올라타지 않고 상체만 살짝 등에 걸친 채 불편하게 교미를 하여야 한다. 수코끼리는 자기 몸무게의 대부분을 자기 두 뒷발로 받쳐 든다. 그렇게 하여 암컷은 2배 정도 무거운 수코끼리라도 별 지장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수컷 코끼리도 일부러 자기 몸무게를 모두 땅에 놓인 자기 뒷다리에 단단히 실어서 사랑하는 암컷에게 어떤 부담도 지우려 하지 않는다. 말의 물건 끝은 성나면 나팔처럼 양쪽으로 돌기가 벌어진다.

이는 교미시 마치 낚시 바늘의 미늘처럼 잘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원하는 목적이 완료되면 힘이 풀려 ‘뽕’ 하고 소리를 내면서 빠져나오기도 한다. 남성 사람으로선 조금 부러운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피가 함께 부풀어 오른 동물들은 물건이 잘 보호되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교미형태를 발휘할 수 있다. 반면에 ‘총알들’은 정상체위에 의한 속전속결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흔히 동네의 개가 교미 후 둘이서 온 동네를 붙어 다니는 남사시러운 꼴을 보곤 했다. 지들도 창피해서 그걸 빨리 벗어나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짓궂은 애들이 그런 개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은연중 성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물건 한 가운데 '귀두구' 라는 돌기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이다. 교미 후 이 귀두구가 구슬모양으로 차올라 구멍을 꼭 막아버린다. 사정이 되도 수컷은 그게 사그라들 때 까지 뿔레야 뿔 수가 없다.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그것에서 피가 빠져 나와야 겨우 풀린다. 왜 개 종류에만 이런 부끄러운 물건을 주었는지 우린 잘 모른다. 추측컨대 무리 생활하는 녀석들에게 '나 임자 있다.' 는 걸 동네방네 알리고 또 혹시 바람 피면 역시 동네방네 소문나도록 하는 조물주의 배려(장난)이었을 수도 있겠다. 뭐 사람도 급하게 바람피우다 이런 일 종종 있지 않은가? 질 경련이라던가... 만일 이런 상태로 무리생활이 아닌 단독생활을 했다면 개과는 아마 진즉 멸종당했을 것이다. 사냥하는 동물들에게 최적의 타이밍은 희생물의 분만시, 교미시, 식사시 또는 음수시 이기 때문이다. 낙타, 사자, 호랑이는 수컷이라도 뒷다리를 벌리고 암컷처럼 오줌을 싣다. 대신 암컷은 암전하게 싣는데 수컷들은 좀 더 짙고 딱딱 날리는 차이가 있다. 그들은 모두 오줌 구멍이 뒤로 나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교미시에는 생식기가 구멍과 반대로 구부러져 나오므로 아주 불편한 자세로 거의 엉덩이에 엉덩이를 가져다 붙여야 할 판이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인도의 요가 자세와 같은 극단의 허리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그 밖에 하이에나 녀석들은 새끼 낳기 전까지 도대체 어느 놈이 수컷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둘 다 똑같이 수컷 모양의 칼집 같은 생식기가 전면으로 나와 있고 고환 주머니까지도 똑같이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뱀은 갈라진 두개의 생식기로 번갈아 교미를 한다고 한다. 고양이과 동물의 생식기 끝에는 발기시 돌기가 형성되어 암컷이 교미 중에 비명 아닌 비명을 지른다고 한다. 보노보 침팬지의 생식기는 덩치에 비해 볼펜모양으로 아주 작고 뾰족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많은 암컷들과 구속 없는 자유연애를 즐기는 동물로 유명하다. 이래보면 식육과 더불어 성육은 참으로 동물이 동물 되게 하는 가장 기본 바탕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이 둘은 아주 복잡하면서도 또 너무나 애쓰고 살아가는 것들이기도 하다. fin~

